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못자리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볍씨를 뿌리어 모를 기르는 곳.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12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4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못자리'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볍씨를 뿌리어 모를 기르는 곳.

못자리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못자리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모자리 사전 표기 요약	—	—	—	—	●→	●→
못자리 사전 표기 요약	—	—	—	—	—	●→
모ᄌᆞ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모ㅅ자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모짜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모자리

19세기20세기
- 못자리
  20세기현재
- 모ᄌᆞ리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5종
모자리, 모ᄌᆞ리, 모ㅅ자리, 못자리, 모싸리

못자리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못자리’의 옛말인 ‘모자리’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모자리’는 옮겨 심기 위하여 기른 벼의 싹를 뜻하는 ‘모’와 ‘자리’가 결합한 것이다.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20세기에 사이시옷이 들어간 ‘못자리’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20세기에는 ‘못자리’의 ‘ㅅ’이 따로 표기된 ‘모ㅅ자리’, 후행 음절로 옴겨 표기된 ‘모싸리’도 나오고 ‘ㆍ’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모ᄌᆞ리’도 보인다.

문헌 속의 못자리

전체 용례 12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모자리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모자리

출처 1880 한불자전 248

용례 01

문헌 용례

모자리 [秧板]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6 국한회어 곤:115

용례 02

문헌 용례

모자리판 秧板.

현대어 풀이

못자리판.

출처 1897 한영자전 PART I :339

용례 03

문헌 용례

모자리(-싸) 秧板 (모-*앙) (판ᄌᆞ-*판) See 모판.

현대어 풀이

못자리 (모 앙) (판자 판) 모판.

출처 1899년11월20일 경향신문 제1호-제52호:3ㄱ

용례 04

문헌 용례

나무 싓치 다 부러지고 집웅이 부서지고 모믹은 놈은 거시 업고 모 부은 모자리가 다 으서지고 새가 죽어 써러지ᄂᆞᆫ지라.

현대어 풀이

나무 끝이 다 부러지고 지붕이 부서지고 모맥은 남은 것이 없고 모 부은 못자리가 없어지고 새가 줄어 떨어졌다.

20세기 모ᄌᆞ리, 모자리, 모ㅅ자리 외 2종 용례 8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모ᄌᆞ리, 모자리, 모ㅅ자리, 못자리, 모싸리

출처 1900-09-01-토 제국신문 제3권 제199호:3면 용례 05

문헌 용례

로원 사ᄂᆞᆫ 한보경이가 금츈에 홍릉 위답 칠두오승낙을 릉군 최만보에게 엇어셔 모ᄌᆞ리ᄉᆡ지 갈엇더니 본동거 쟝덕인이가 그 논을 엇엇다 ᄒᆞ고 갈어 노은 논에 모를 붓고 모를 ᄂᆡ랴 ᄒᆞᄂᆞᆫ지라.

현대어 풀이

노원 사는 한보경이가 이번 봄에 홍릉 위답 칠두 오승낙을 능군 최만보에게 얻어서 못자리까리 갈았더니 본동에 거주하는 장덕인이가 그 논을 얻었다 하고 갈아 놓은 논에 모를 붓고 모를 내려 하였다.

출처 1920 조선일보 6월17일 3면 용례 06

문헌 용례

기ᄃᆡ리고 기ᄃᆡ린 비가 온 뒤에 조선 각지의 즁요한 농산물의 싱육ᄒᆞ는 상항을 알어본즉 밧작ㅅ 말너 바린 모자리에는 이절는 물이 흡족ᄒᆞ야 ᄒᆞ나도 유감됨이 업시 젼부 종자를 쑤러스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0 동아일보 6월 28일 4면 용례 07

문헌 용례

차차 긔운이 회복되는 대로 모ㅅ자리도 만들고 씨앗도 쑤리고 모종도 옴기기 시작 하게 되엇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2 동아일보 3월 24일 3면 용례 08

문헌 용례

일긔가 아모리 칩다 하야도 봄날임으로 눈은 곳 녹을 것이오 야채에도 역시 큰 손해는 업슬 듯하나 이십 일만 느젓드면 못자리에는 큰 손해가 잇섯슬 것이라고 말하더라.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2 동아일보 4월 30일 3면

용례 09

문헌 용례

방금 못자리 붓칠 때를 당하야 개천 아래위를 막고 물을 통용치 못하게 함으로 륙십 여명의 경작하는 논 오만 여평은 건답이 되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3 조선일보 6월 9일 3면

용례 10

문헌 용례

요사이도 날이 흐리여 비는 올 듯 올 듯하면셔 오지 안이하고 각쳐에셔 모싸리가 말너 드러 감으로 모를 옴기기는 고사하고 모싸리 보존도 할 수가 업다고 야단이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5 조선일보 5월 3일 2면

용례 11

문헌 용례

각 농가에서는 못자리를 하려고 종자의 호부를 다시 검사하야 본즉.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6 동아일보 5월17일 2면

용례 12

문헌 용례

함북 경성(鏡城)의 요사히 긔후는 례년보다 춥고 정월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아니하야 심엇든 보리는 싹도 나지 아니하고 못자리도 못하엿다는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못자리 관련 낱말

모, 모판, 못자리판

못자리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못자리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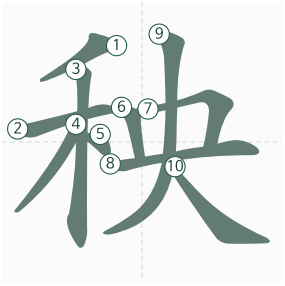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秧 뜻·음 모 앙

총 10획 · 부수 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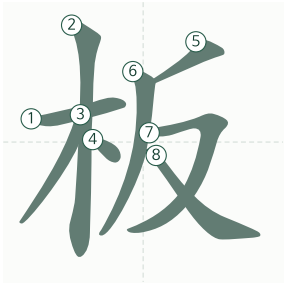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秧/

板 뜻·음 널 판

총 8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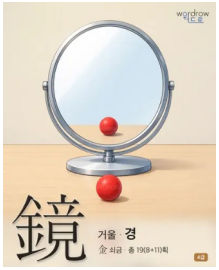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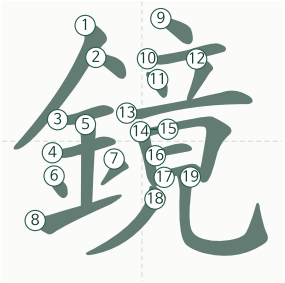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板/

鏡 뜻·음 거울 경

총 19획 · 부수 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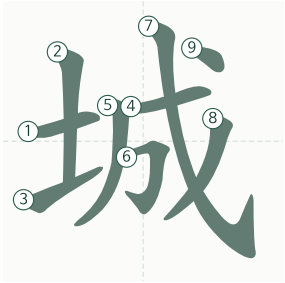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鏡/

城 뜻·음 재 성

총 10획 · 부수 土





사전 10획 · 획순 그림 9획

hanja.wordrow.kr/한자/城/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